

서평

중국 지식인 사회의 ‘중국모델’ 담론

『中國模式: 解讀人民共和國的60年』

윤경우(국민대 교수 · 국제학부 중국학 전공)

I. ‘중국담론’의 개략

‘중국모델’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이룩한 ‘중국식’이라 부를 만큼 독특한 중국의 경제부흥방식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본보기’로 삼을 만한 국가발전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의 담론은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즉 중국 고유의 특징을 가진 발전모델이 실재하는지와 만약 존재한다면 다른 국가도 모방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로 형성된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중국모델을 공산당 일당독재, 이념을 초월한 철저한 실용주의, 정부 주도의 점진적 · 단계적 경제개혁,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혼합경제, 적극적인 글로벌 경제 편입, 대외 불간섭주의 등을 견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성공한 발전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모델이 국제적 관심을 크게 끄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권위주의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모델에 대한 논의는 옹호론과 반대론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현재의 공산당 일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룬 중국모델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다른 국가들도 모방할 수 있는 서구식 발전모델의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고 결국 서구식 발전모델로 수렴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성취를 중국이 부단히 서구 경제체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서구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구 지식인들은 주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만연한 부패와 불평등 심화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모델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학자들도 대부분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은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다며 중국모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모델을 옹호하는 서구 지식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식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서구의 기대처럼 자유나 개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개발도상국에도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이 서구식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 중국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중국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공산당 정부는 민주화 없이 경제 발전에 성공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를 ‘중국모델’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정당화하며, 국내외에 중국 체제의 특수성

과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고무된 자신감으로 재무장한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모델을 서구식 잣대가 아닌 중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각색(脚色)하여 '중국'이란 국가체제를 하나의 모델로 보는 개념으로 진화시켜 중국 정부에 호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구 사회의 경계와 반발을 의식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 정부와 달리, 중국 주류 지식인 사회는 학계와 언론계가 중심이 되어 중국모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시도하며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중국모델의 개념을 각색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의 가치와 그의 보편적 확산 가능성을 설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중화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진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 양대 강국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향후 발전은 중국모델에 대한 논의를 더욱 무성하게 할 것이다. 변화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실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도 한국적 시각으로 현재의 중국을 규정하고,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최근 중국 주류 지식인 사회가 중국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중국모델 담론의 정체와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중국 주류 지식인 사회의 '중국모델'(中國模式) 해석

중국의 환경과 역사를 무시한 채 서구의 체제를 미신처럼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 국가체제의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설파하는 중국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담은 서적이 『중국모델: 인민공화국의 60년을 독해한다』(中國模式: 解讀人民共和國的60年)이다. 판웨이(潘

維)를 포함한 17명의 저자들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해진 중국을 하나의 모델로 보고, 그 모델의 본질과 가능성을 중국학자의 시각에서 조망한다.¹⁾

저자들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이룩한 중국의 눈부신 경제적 성취가 자국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서구의 눈이 아니라 중국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중국 특색의 독창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환경을 무시한 채 서구의 체제를 무조건 수용해 정치·경제·사회의 변혁을 이루어낼 것을 강요할 경우 오히려 개발도상국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서구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1. 국(國)과 민(民)이 결합한 혼합경제

판웨이는 국유와 사유 등 여러 형태의 소유권이 공존하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중국식 혼합경제를 ‘국민경제’(國民經濟)란 용어를 사용하여 서구의 혼합경제와 구별을 시도한다. 국민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근간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국가(國家)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요소인 민간(民間)이 서로 보완하고 지탱하는, 관방에서 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中國特色的社會主義市

1) 이 책은 주편(主編)을 맡은 판웨이가 하나의 모델로서 중국의 발전에 대한 자신의 이론적 해석과 이상적인 미래상을 소개하는 총론으로 시작한다. 총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4장 16절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공별로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성공 경험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중국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1949년 이후 인민공화국 60년 동안 성과의 배경에 대해 역사적 전통과 현재적 상황을 동시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설파한다.

場經濟)의 다른 이름이다.

가오량(高梁)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시장에 관여하여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상호 균형과 보완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왔고, 그와 같은 정부의 역할 때문에 2008년 이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서구와 달리 시장화와 사유화의 미신을 타파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모델을 사회주의 원칙과 시장 요소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한 부단한 탐색으로 보고,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통에 따른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한다.

관웨이와 가오량은 공유제 경제가 중국의 국민경제에서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애써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국가의 공적 개입으로 보완하고 있는 서구의 혼합경제를 의식한 것이다. 즉 종래의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도입하고 있는 중국식 혼합경제가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산당이 주도하는 시장화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장바이자(章百家)와 원테권(溫鐵軍), 동샤오단(董筱丹)은 중국식 혼합경제가 서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모델이라는 근거를 과거의 역사에서 찾는다. 장바이자는 전통농업 위주의 낙후한 인구 대국이었던 신중국(新中國) 성립 이전 구(舊)중국의 '반통제반시장경제'(半統制半市場經濟) 체제의 경험이 중국인의 의식 속에 잠복해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건립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한다. 원테권과 동샤오단은 오늘날 중국 경제의 성공은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시작으로 지난 100년 동안 시도된 여러 차례의 공업화를 기초로 형성된 민족주의로 지탱하는 국가주의적 정부시장경제(政府市場經濟)가 중국모델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특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쉐펑(賀雪峰)과 리링(李玲)은 중국모델의 핵심과 기초를 개혁개방 이전 30년, 즉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서 찾는다. 그는 호구제도와 단위제도와 같은 제도적 제약이 대규모 저임금 인력 조건과 정치적·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조성했다고 보고,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관리해 온 도농이원구조(城鄉二元結構)의 전통이 중국의 독특한 경험이므로 중국모델을 조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리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 30년에 보건위생의 개선, 의료제도 정비, 대중 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후반 30년 성공의 바탕이 된 양질의 대규모 인력 자원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후안강(胡鞍鋼)은 지난 60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보여주었던 지도력에 주목한다. 그는 빈곤 퇴치를 위해 과감히 도전하고 난관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태도, 계획경제의 특징인 국가의 체제 관리방식, 정치적 안정을 위한 연속성 있는 제도 보장, 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하는 영도력 등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빈곤대국(貧困大國)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제 편(邊)의 저자들은 중국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역사적 경험에서 현재 중국의 모습을 찾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중국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는 봉건주의와 전제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공산당 이념과 이율배반적이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역사로 규정한 인민공화국 전반 30년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시행착오나 광기(狂氣)에 대해 일말의 언급도 없이 이후 30년 도약의 기반이 된 성공한 시기라는 과장과 미화도 모순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대중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가 추구하는 통치 전략과 일치한다.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로 공색해진 통치 이데올로기를 보완해야 하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는 중국 주류 지

식인들의 태도를 어찌면 ‘학문은 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중국공산당의 오랜 전통이 작동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배타적인 중화주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2. 민본(民本)과 위민(爲民)의 권위주의 정치

그동안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모델을 중국식의 ‘경제발전’ 모델이라고만 단정하기 쉽다. 저자들은 오늘날 중국의 성공이 경제적인 성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적인 특수성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판웨이는 민심(民心)과 천심(天心)이 존재하는 ‘인민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인 ‘민본정치’(民本政治)를 기본으로 삼는 중국 정치모델이 경제모델의 발생을 촉진시켰으며, 민본정치가 와해되면 국민경제 또한 곧바로 붕괴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민주와 독재 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양분하는 서구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계승한 중국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서구와 다르게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 이후 서구는 관(官)·민(民) 관계의 핵심을 권리로 보지만 중국은 책임으로 여기며, 중국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전체 인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 있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천명관(天命觀)과 ‘민심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는 민본사관(民本史觀)에 따라 국가가 인민을 위한 봉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반란을 일으켜도 합당하다.

판웨이는 중국에서 ‘민주’(民主)란 개념은 전체 인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부권력을 장악한 인민대표, 즉 관(官)이 주인이 되어 민(民)을 위해 일하는(管) 것이며, 이것이 대의제의 본래 의미

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반 정당들이 특정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뿐 전체 국민의 이익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서구식 다당제가 국가 규모가 너무 큰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권적 견제와 균형’(分權制衡) 제도도 전체 민심을 만족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본다. 대신 권력이 단일 집권집단에 집중된 지배구조 속에서 ‘분업적 견제와 균형’(分工制衡)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국가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공산당 일당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며,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동요하면 그동안 이룩한 성과도 잃을 뿐만 아니라 내란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주요 권력기구 내에서 그동안 제도화된 분업적 견제와 균형, 체계화된 당·정 간부 및 관리의 선발과 교체 방식, 개선된 정부 행정의 과오 예방과 착오 수정 방식 등을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서구식 선거 민주 또는 개인 독재와 차별된 중국적 특색의 정치모델이라고 판웨이는 주장한다. 사실 권력분립이나 다당제와 같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은 채 공산당 권력을 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력기구 역시 공산당이 유일하기 때문에 중국 국가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당내민주’(黨內民主)이다.

자오쑤이성(趙穗生)은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서구의 선진화한 시장경제, 발전 경험, 경영관리방식 등을 도입하면서도 서구식 정치적 자유화를 허용하지 않고 중국식 정치개혁을 통해 체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공산당 정부의 ‘선택성 학습’(選擇性學習)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그는 또한 일당지배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방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배체제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한 중국공산당의 적응 능력도 높게 평가한다.

왕샤오광(王紹光)은 중화인민공화국 60년 동안 농촌 의료자금 조달체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 정치체제의 학습기제와 적응 능력을 입증한다. 그는 중국이 기층사회에서 시도한 각종 형식의 실천과 실험으로부터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얻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고, 그에 따라 높은 적응 체제를 갖춘 중국모델이 점차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각국 정치체도의 평가는 학습-적응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평가해야지, 자유 경쟁 선거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한다.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체계는 당과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제도 역시 중국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사법제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규 임용고시를 거쳐 국가의 공식 간부로서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법관·검찰관·변호사·공증인 등 정규(正規) 법률 종사자 외에도, 중국에는 정규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층의 법률 서비스 종사자, 기업 법률고문, 중재원, 인민쟁의조정요원(人民調解員), 보안요원(治安保衛人員) 등 반정규(半正規) 또는 비정규(非正規) 법률 종사자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인구나 방대한 영토로 개혁개방 이전부터 기층 수준까지 정규 법률 종사자가 공급되기 어려웠다. 개혁개방 이후 정규 법률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화의 확대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소송을 자제하기 때문에, 여전히 반(半)정규 종사자 또는 비(非)정규 종사자들이 기층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규와 쟁의를 조정 및 화해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사법계는 정규(正規) 종사자와 반(半)정규 및 비(非)정규 종사자가 혼재하며 사법

수단과 비(非)사법수단이 공존하는 형태가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중국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징원(朱景文)은 주장한다.

중국 헌법의 불문법적 특성도 중국 정치모델의 중요한 특징이다. 헌법에는 전국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와 그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최고 권력기구이다. 이러한 공산당의 실질적 지위에 대한 정당성은 헌법 서언(序言)에 삽입되어 있는 국가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공산당의 영도'란 문구를 기반으로 한다. 창스공(強世功)은 공산당 당장(黨章)이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규범성(規範性) 원칙으로 '중국 헌법의 불문헌법'(中國憲法中的不成文憲法)이며, 성문헌법이 규정한 전국인대와 불문헌법인 당장(黨章)이 규정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가 결합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당(黨)·정(政)·군(軍)의 권력이 상호 결합한 '삼위일체'의 국가영도체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성문법적 법률수단도 매우 약하다. 중앙-지방 관계의 핵심은 전국인대와 지방인대의 관계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계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 중국공산당 중앙과 지방 당위원회의 관계이며, 각급 지방 당위원회 서기가 각급 지방 당·정 지도자 중에서 최고 책임자이다. 수많은 지방 당위원회 서기는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의 직책을 동시에 겸직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당권(黨權)과 정권(政權)의 직접적인 합일(合一)을 실현한다. 이러한 당(黨)-정(政) 쌍행정(雙行政) 체계가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판펑(樊鵬)은 경민(警民) 관계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 전통은 국가가 구체적인 민생 수요에 응답하는 것을 중시하고, 관민(官民) 융합과 다원화된 반(半)관방 기제에 의지해 안정을 유지하는 모델을

형성했다. 중국은 고대부터 국가의 강제력이나 전문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기층사회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기층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층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모색했다.

이러한 전통은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이어졌다. 국가는公安 계통의 공식적인 치안조직의 강제적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원적인 군중이 조성한 사회기제와 치안보위위원회(治安保衛委員會), 치안보위소조(治安保衛小組) 등과 같은 치안조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거버넌스(治理) 구조의 정규화,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통치력 강화,公安체계의 권력 집중화 등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기층 지역사회에서 경민 관계도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그런데도 재정 제약으로 인한 정규 경찰력이 부족한 지역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기층사회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며 전통을 유지한다.²⁾

정치 편의 저자들은 중국공산당이 전통적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유산을 물려받아 위민정책을 앞세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과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설파하며, 정치적 민주화 없이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한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옹호한다. 또한 그들은 헌법의 불문법적 특성, 중앙과 지방의 당·정 행정구조, 사법과 치안의 광범한 방권(放權)과 관민(官民) 협력 등이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제시하며, 정치·사회적 안정이 중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한다.

2) 판핑에 따르면 1980년대 초 개혁개방 이전에 기층의 군중이 참여하여 조성했던 치안조직인 치안보위위원회(治安保衛委員會)와 치안보위소조(治安保衛小組) 업무도 회복되었고, 재정적인 제약과 정규 경찰력의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층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정부 발기를 통한 민간 참여의 방식으로 치안연방대(治安聯邦隊)·경제민경(經濟民警)·협조경(協助警) 등을 건립하여 지방치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민본사상(民本思想)과 위민정치(爲民政治)란 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인민은 공산당의 집권 강화를 위해서 잘 통치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며, 백성을 위한 정치는 공산당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

3. 관민일체(官民一體)의 그물망 사회체제

판웨이는 중국식 혼합경제와 권위주의 정치가 모두 서구와 차별화된 중국의 독특한 사회구조와 사회의식, 즉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로 건설된 관민일체(官民一體)의 입체적 그물망 사회체제인 사직체제(社稷體制)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와 사회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서구의 이분법적인 접근방법에 도전한다. 그에 따르면 전통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서구처럼 계급을 가지거나 이익집단에 귀속된 ‘개인’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고 유동하는 ‘가정’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기본 형식도 계층적 시민사회가 아니라 가정을 기초로 한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지역 공동체 및 업무 단위가 형성한 사회적 그물망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그물망은 수직적·수평적 조직체계로 구성된 행정 그물망과 자연스럽게 중첩되면서 상호 침투하고 의존하여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입체적 그물망을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가정 윤리관은 사회조직과 행정관리의 논리에 스며들어 간다. 판웨이는 이런 중국의 입체적인 사회 그물망을 사직(社稷)이라고 부른다.

판웨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와 달리 중국에서는 책임(責任)이 관민(官民) 관계 이념의 핵심이며 사기위가(舍己爲家) 정신이 중국 사회 윤리의 모범이다. 관리는 백성을 위해 일하는 본보기이며 대가장(大家長)이고, 민중의 관본위(官本位) 의식도 ‘부모와 같은 관

리'(父母官)의 행위규범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윤리 개념이 사회조직의 운영을 주도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서구와 같은 계급사회가 형성되지 못했고 법률과 계약도 발달하지 못했다. 서구의 계약적 법리는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하고, 공적인 권력과 사적인 권리의 구별을 명확히 하며,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한다. 반면 중국의 가정윤리는 공과 사, 사회와 국가의 구분을 희석한다.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관리이면서 백성이었던 '향신'(鄉紳)이 전형적인 예이며, 현대 중국에서는 기층의 당단(黨團) 조직이 관민일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판웨이는 주장한다.³⁾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사회는 통일적인 평균주의 분배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계급·계층의 차이가 크지 않은 통일적인 체제로 변했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에는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원적 국가-사회의 관계가 완화되어 새로운 계급·계층 구조가 형성되고, 새로운 형태의 중산계층이 확대되며, 이익구조의 다원화와 함께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리창(李強)은 이렇게 인민공화국 60년 동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전통적 사회모델이 '사회문화적 완충장치'(社會文化緩衝帶)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가도(街道)와 사구(社區)의 거민위원회(居民委員會), 농촌의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 국유기업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나 전직 직원들에 대한 계속된 지원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장징(張靜)은 정치변동 과정의 영향을 받은 조직 현상과 사회 연결망 관계의 영향을 받은 문화현상이 국가에 대한 반대 역량을 가진 거대한 사회세력의 형성을 막아 중국이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

3) '향신'은 향리의 퇴직관리나 유력인사 등의 사회계층으로서, 그 지방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아 존경을 받는 지도자 또는 실질적인 지배자의 역할을 했다. '당단'은 '공산당'과 '공산주의청년단'의 줄임말이다.

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중국 성립 이후 진행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사회 재편성 과정에서 중국 사회는 수직적으로 연결 접속되고 수평적으로 분할된 구조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결합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로 각각 독립되거나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인 사회 연결망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발생하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 가운데 사적인 개인 관계는 다른 지위와 배경을 가진 군체(群體) 사이의 교량이 되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익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이러한 비공식 관계의 대량 존재가 서로 다른 무리의 대립을 중화하고 계급을 넘어서 교량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징은 국가 지도부가 정치적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부정부패의 뿌리가 권력이 집중된 공산당에 의해 조성된 행정 합일(行政合一)의 조직현상과 유구한 전통을 가진 사회 연결망 문화 현상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판웨이와 리창이 강조하는 관민일체(官民一體)의 사직체제와 기층의 사회문화적 완충장치 역시 공·사의 경계를 희석시켜 중국의 법치사회로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 편의 저자들이 인용하는 유교적 국가관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강력한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국가는 부모에 비유될 정도로 그 권위에 한계가 없었고, 늘 중국 문명의 구현자이며 수호자로 인식되었으며, 항상 백성의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인 공평과 평등의 정의에 어긋나는 모순적인 현상마저도 미화하고 있다.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서구와 차별할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중국적인 특색은 무엇이든지 끌어다 중국모델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중국 주류 지식인 사회의 음기응변 능력이다.

III. 중국 주류 지식인 사회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검토하고 평가한 판웨이와 16명의 동료 저자들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류 관변학자 대부분은 중국적인 시각에서 중국모델이 실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중국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중국모델에 기초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의 전(全) 역사 과정을 귀납적 분석대상으로 삼고, 수천 년 중국 역사가 모두 지난 30년간 중국이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오쩌둥 시대까지도 개혁개방 이후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미화하며 건강부회(牽強附會)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앞으로 중국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모델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오양(姚洋), 황야생(黃亞生), 천즈우(陳志武)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제성장에 민주화는 필수 조건이라는 서구의 주류 발전론을 수용하여, 중국모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역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중국으로 귀국하여 관변학자로 변신한 이 책의 주 편저자 판웨이와 공동 저자 왕샤오광과 대조적이며, 이는 곧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주류 지식인이 처한 상황과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들을 포함하여 관변학자들은 정치영역의 질적인 변화 없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식 개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중국모델을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다당제, 권력분립, 직접선거 등 서구 민주주의가 중국 실정에는 비효율적이며 분열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현 정치체제가 중국 상황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시종일관 전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달라진 중국 정부와 관변학자들의 태도이다. 중국모델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중국 정부가 이를 중국이라는 국가체제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여 제3세계에 경제 원조와 함께 적극적인 전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모델을 외부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는 최근 더욱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서구의 경계심이 다시 고조되자 굳이 서구의 ‘중국위협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차원의 대응이다. 이후 관변학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중국모델의 타국 적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중국 내에도 중국모델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은 수적으로 극소수이며 중국 전체 지식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약하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이끌어 가는 공산당의 통치효율을 제고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내 개혁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 아니다. 해외 중국계 지식인들은 중국 국내에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모델을 옹호한다.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은 중국의 전통과 체제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중국모델 담론의 중국 내 확산이 다수 중국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⁴⁾ 자국 특수성을 내세우며 최근 득세하고 있는 중국의 신좌파나 신보수 논객들을 포함하여 중국 지식인 대다수

는 오늘날 중국의 성공이 개혁개방 이전 모든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바탕이 되어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은 마오쩌둥 시대까지도 무비판적으로 교묘한 논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과거 철저히 탄압했던 공자와 유교사상도 문화대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아이콘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성공은 중체서용(中體西用)으로 시작해 인민공화국 60년 동안 부단히 서구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취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판웨이와 동료 저자들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서구와 무조건적인 차별을 시도한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일반 대중 대부분이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쉽게 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지식인도 오로지 중국적 특수성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중국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포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통적 가치를 인용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가 아니다. 그들은 발전 과정에서 각종 사회 병리적 현상이 드러나고 사회적 좌절감도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직접선거와 다당제를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일관적으로 비난하는 자신들의 논리가 자가당착에 빠질까 봐 두려워 아무도 기층에서 실험되고 있는 직접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학문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식인 대부분은 체제 수호자로 변신했다. 최근 패권 지향적

4) 중국모델은 중국 사회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4.55퍼센트가 중국모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20퍼센트만이 서구식 민주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民衆如何看待‘中國模式’調查：74.55%民衆認可”，新華網，2008年 12月 19日。

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목인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진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중국 지식인 사회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그들이 내세우는 중국모델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형성된 개발독재를 반서구화, 민족주의, 애국주의, 국가주의, 패권주의 등과 뒤섞어 포장한 것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그들의 주장은 과거 ‘한국식 민주주의’로 포장된 발전과 억압의 두 얼굴을 가진 개발독재 논리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중국에서 현 국가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끌어와 합리화시키는 건강부회와 곡학아세를 일삼는 지식인들은 과거 한국에도 많았다. 중국 5세대 영화감독 장이모(張藝謀)는 체제 비판적인 영화를 주로 만들다가 최근 중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구현하는 체제 순응적 감독으로 변신했다. 그의 경우처럼 중국 지식인들의 국가에 대한 비판 기능이 국가권력과 영합한 시장의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약해졌다면 슬픈 일이다.

중국모델은 사실 많은 특장(特長)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면 독재체제를 견지하는 개도국에는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달콤해 보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현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부회하는 논리 전개는 자신들이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애써 찾아낸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중국식 전통에 대한 가치마저 퇴색시킨다. 더구나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는 중국식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하려 노력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 중국식 경제모델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도 그렇게 강고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국에서 지식인들이 국가체제를 직접 비판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입장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 빨리 조성되길 바란다. 중국 지식인들이 현재의 국가체제 또는 중국모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중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작업이다. 중국이 현명한 선택으로 자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해 주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潘維 主編, 『中國模式: 解讀人民共和國的60年』(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9).
- 陳志武, 『沒有中國模式這回事』(臺北: 八旗文化, 2010).
- “民衆如何看待‘中國模式’調查: 74.55%民衆認可”, 新華網, 2008年 12月 19日.
-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 Yang Yao, “The End of the Beijing Consensus: Can China’s Model of Authoritarian Growth Survive?”, *Foreign Affairs*, Vol. 1, No. 89(January/February 2, 2010).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5947/the-end-of-the-beijing-consensus>.
- Yasheng Huang, “Rethinking the Beijing Consensus”, *Asia Policy* No. 11(January, 2011).